연천 심원사지 발굴

3,600여평 대규모 사찰 확인


◇연천 심원사지 천불전 건물지 노출상태.

경기도 연천 보개산 심원사지 사역이 동서 140m 남북 80m 등 약 3,600여평의 규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천군 심원사지 발굴조사단(단장 홍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은 전체사역 중 주요 전각이 위치하는 상단(1단공지)을 조사한 결과 총 5동의 건물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단은 문헌에 누락된 명부전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조선시대 토불좌상(사진)과 입상, 후령통(복장을 넣는 통), 동경 등 7개의 유물을 발굴했다.

토불, 동경 등 7개 유물 출토
23억 투입 복원불사 전개중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가 5월 8일부터 발굴조사에 들어간 연천 심원사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폐사되기 전까지 천불전을 중심으로 동편에 ㄱ자 부속건물, 서편에 봉향각 등 주요 전각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조선중기에는 천불전이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 목불의 흔적과 하층의 대좌적심, 연화대좌 등이 발견돼 최후 폐사시기의 천불전 자리는 원래 대웅전 건물이 위치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건물의 정면 배치에 있어서도 현재 중심건물과 동편건물은 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봉향각인 서편건물은 동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중기 때의 모습은 서편의 건물 역시 남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 최태선 교수(중앙승가대, 고고학)는 "출토된 토불과, 복장유물 및 불교의례 유물들은 소외시되어 온 조선시대 불교미술사에 중요한 자료"이라며 "160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탑부재가 산재하는 만큼 앞으로 2단의 조사시 대웅전과 관련된 탑지의 위치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647년 영원조사가 창건한 연천 보개산 심원사는 12개의 산내암자와 32위의 탱화, 1,609위의 불상, 탑 2기, 250간의 당우를 갖춘 대 사찰이었으나 6·25 전쟁당시 소실, 현재 천불전 건물 1동, 지장보살석상 1위, 공적비 2위, 지장보살 불상 영험비 1위, 부도 11기만 남아있다. 이중 천불전 건물과 지장보살상은 6·25 이후 이전한 철원군 동송읍 상노1리 현재의 심원사로 옮겨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정부가 편입시킨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대 심원사지 소유토지 250만평을 되찾은 심원사 주지 도후 스님은 2002년 4월 군부대로부터 사지복원 허가를 받았다. 23억원이 투입되는 심원사지 복원불사는 2005년까지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구로동 관법사
젊은보살들·노보살들

"성실한 신앙생활 모범"


◇기도중인 관법사 노보살들.

▨ 노보살들

'성실한 신행생활로 아랫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법상 법사(46), 김순례(75), 현금자(75), 오화석(70), 염연섭(70), 임혜자(69), 김영자(56), 한영숙(53) 보살(사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60~70대가 주축을 이루는 노보살들로 구성된 일명 기도부대다.

지휘관은 오랜 수행 경험을 통해 노보살들의 기도정진을 이끌고 있는 법상 법사. 교리지도는 물론 기도법과 신행상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도부대원들의 기도 경력들이 평균 15년 이상으로 만만치 않아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3~4시간씩 열중한다. 특히 1주일에 한번씩 관법사의 자랑인 1만8백 염주를 나누어 돌리며 지장 정근을 하며 틈나는 대로 모여 앉아 사경을 하기도 한다.

김순례 보살은 "인생을 회향하는 나이에 이렇게 기도환경이 잘 갖추어진 관법사에서 매일 도반들과 기도할 수 있어 좋다"고 즐거움을 토로한다. (02)2636-6378

▨ 젊은 보살들

'관법사의 율력은 모두 우리가 책임진다.'

김현아 총무보살(43), 민은숙 법당보살(36), 박현수 거사(37), 이미희 연꽃보살(22)<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30~40대의 젊은 나이로 이른바 관법사의 행동대원(?)들이다. 소임을 맡고 있는 김현아 보살은 장보기를 비롯해 재정 및 신도관리 등 모든 절살림을 진두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이다. 그 곁에 법당청소와 법기 관리 등을 하는 참모 민은숙 보살이 버티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틈날때마다 신도들에게 연꽃 그리기를 지도하고 있는 이미희 보살도 절의 큰 대소사가 있을때마다 한몫을 단단히 한다. 절일을 하다보면 힘쓰는 일도 필요한 법. 이럴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박현수 거사. 행동대원들이 찾으면 언제든지 한걸음에 관법사로 달려오는 믿음직한 신도다. 김현아 보살은 "가능하면 노보살님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절일에 신경쓰지 않고 기도정진에만 몰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기자


◇관법사의 행동대원들인 젊은 보살들.

"절집일 걱정 마세요"



추천의 말

체인 스님 관법사 주지

우리 절에서는 주로 30~40대가 주를 이루는 젊은 보살님들이 중심이 돼 법당청소와 신도 관리, 공양짓기 등 울력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보살님들은 절에 나와 기도정진만 하지요. 똑같은 신도지만 집에서 부모님을 공양하듯 힘든일을 마다하지 않는 젊은 보살님들과 어른으로서 묵묵히 수행과 신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모범을 보이는 노보살님들 모두 관법사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울력, 기도 서로에게 본보기

호국의 간성 배출하는 도량으로…


◇육군 부사관학교 법당 기공식이 18일 개최됐다.

9월1일 토목공사…12월 준공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 법당기공

불자 부사관 양성의 요람 호국 충국사가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8월 18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주지 정행) 법당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불사추진위원장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의 인사말과 육군부사관학교장 이병길 준장의 감사말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군불교위원회 성광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당기공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육군부사관학교장 이병길 장군의 노고에 찬탄과 경의를 표한다"며 "주지 정행법사와 신도회, 부대 장병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육군부사관학교가 호국의 간성을 배출하는 진정한 요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 지어진 법당이 금강석과 같은 신심과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새로운 원력을 십분 발현할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총 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충국사 신축 법당은 350여평의 부지에 조성되며 한번에 1천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대규모 건물이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불사는 9월 1일 토목공사를 시작한다.

충국사 주지 정행 법사는 "2004년부터 부사관학교 교육인원이 연간 9천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신축 법당을 통해 3천여명의 불자 부사관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충국사는 부사관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백여평의 대지에 조성돼 있는 충국사 법당은 1980년 사병식당으로 건축된 건물을 1999년 개보수를 통해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천시 지붕 누수와 요사체 오수관 역류문제로 법회 봉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혁기자

강화 선원사 무술수련생 입단식

중국 숭산 소림사 무술수련생 입단식이 8월 28일 오전 11시 강화 선원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날 무술수련생 입단식은 선발된 초등학교 남학생 8명을 삭발하는 의식으로 치러진다.

강화선원사는 지난해 9월 중국 소림사와 무술교류 협약을 맺고, 올해 7월15일부터 향영 스님(소림사 무승)을 초청, 무술수련원을 개설했다. 김원우 기자

원흥사터 추후발굴필요 결론

직지보다 72년 앞서 고려시대 목판본을 인쇄한 원흥사터로 추정됐던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역 시굴조사결과 사지와 관련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7월 1일부터 원흥이 방죽 일대를 시굴조사한 중앙문화재연구원은 8월 18일 원흥리 유물산포지에서 시굴조사 보고회를 갖고, 건축물 석렬이 발견됐지만 주건물지는 사업구역 밖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건축물 석렬 보존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성급한 기대를 걸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상기 책임연구원은 "원흥사와 관련한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건물지가 확인됐지만 절터인지 집터인지도 모르며 추가 발굴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한편 원흥사는 고려 충렬왕 31년(1305) 목판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찍어낸 사찰로, 산남동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제18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무료수강생 모집

강 좌 명	과 정	강 의 일 시
수지침	초급	매주 토 09:30~11:30 2003. 9.20 개강
수지침	중급	매주 토 13:00~15:00 2003. 9.20 개강
원왕생	초급	매주 금 14:00~16:00 2003. 9.19 개강
불교호스피스	초급	매주 목 14:00~16:00 2003. 9.18 개강
파스요법		매주 화 14:00~16:00 2003. 9.16 개강
환경	초급	매주 화 10:00~12:00 2003. 9.18 개강

▶ 교육비 무료 ▶ 수료후 상담을 통해 희망 봉사영역 배치
▶ 봉사활동 인증제(보건복지부)실시로 각종 혜택부여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0일 ~ 9월 14일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본회중앙사무국 (☎02-723-6258~9 / FAX 723-6257)
■ E-Mail : buvolcen@chollian.net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Buddhist Volunteer Association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시사저널] 9층
☎ 02)723-6258~9

이세상 햇빛을 못본채 어둠속으로 스러져간 아기 넋들을 위한
제8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려는 한 생명체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면서 받는 살상의 충격은 아기영가에게는 큰 영적장애가 되며, 모친에게는 큰 악업이 되므로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참 평안을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주어야 합니다.

기 도 일	양 월 일(음 력)	요 일	기도정전 준비물
입 제 일	양 9월3일(음 8월7일)	수 요 일	1. 장수멸죄경사경 2. 지장님 사불 3. 나무아미타불 사경 4. 광명진언(지의) 5. 신행노트 6. 극락세계유람기
1재	양 9월9일(음 8월13일)	화 요 일	
2재	양 9월16일(음 8월20일)	화 요 일	
3재	양 9월23일(음 8월27일)	화 요 일	
4재	양 9월30일(음 9월5일)	화 요 일	
5재	양 10월7일(음 9월12일)	화 요 일	
6재	양 10월14일(음 9월19일)	화 요 일	아미타경 사경 혹은 독경
49재	양 10월21일(음 9월26일)	화 요 일	
관욕준비물	비누, 수건, 아기영가옷(처음하시는 분) · 광명진언 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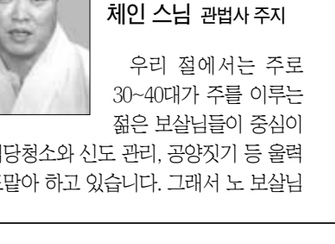
▶ 입 재 일 시 : 2003년 양 9월 3일(음 8월 7일) 오전 10시
▶ 회 향 일 시 : 2003년 양 10월 21일(음 9월 26일)
▶ 입 재 장 소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 (☎02-939-3900)

■ 불교자원봉사연합회(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58-1 청양빌딩[시사저널] 9층)
■ 자원봉사자 기도도량 사천왕사(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37 일신프라자 4층)

불교자원봉사연합회
☎ 02)723-6258, 939-3900 FAX : 723-6257, 930-0108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